

# 30분대 주파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 준비 본격화

## 군, 광주권 접근 강화·행정통합 대응전략 발굴 관광·교통·상권 연계…“실효성 과제 선정·실행”

강진군이 광주권 접근성이 30분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 대비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진군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군 본청과 사업소 등 28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

군은 지난해 초부터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인구·자본 등의 타지역 유출(빨대효과) 우려에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동시에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이른바 ‘G.G.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강진-광주 간 협력사업 및 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이러한 배경에 더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진군의 접근성 개선과 광주와의 연계 확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관광수요 대응, 교통·이동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마케팅 강화 등 크게 4대 분야에 총 33건의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해 호텔·리조트 등 숙박인프라 유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강진만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체험·휴양·해양자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이동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강진군은 최근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용 증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전기차 충전허브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구간 도로 안내판 정비·도로 안전시설물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분야는 방문객 증가가 지역 상

권 매출로 이어지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진군의 농특산물 로컬브랜드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 가격·서비스 신뢰를 높이고, 우수

음식점·숙박업소를 군 공식 채널에 홍보해 관광객 유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착형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스포츠와 관광 연계 사업을 발굴하면서 위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체류와

소비를 동시에 확장하고,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팜투어리즘 운영해 관광 유입을 정착 수요로까지 연결하는 ‘관광-정주 연계’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도시권을 겨냥한 타깃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제·행사 홍보물을 제공하고, 정책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현장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개통’ 자체가 아닌 ‘강진에 가야 할 이유’를 전달해 실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준철 부군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과제를 선정해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며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진군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소쇄원



가마골



메타랜드

담양군이 설 당일(17일)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병오년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추억을 선물하고자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주요 관광지의 환경과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지역 식품판매업소, 식품

## 담양, 설 당일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 죽녹원·소쇄원·메타랜드·가마골생태공원 등 4개소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군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슬길을 따라 죽림욕, 한옥·죽속체험 등 다양한 체

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담양 대표 관광지이며,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메타세쿼이아길과 예코허브센터, 호남기후변화체

험관, 맨발걷기길, 개구리생태공원, 어린이프로방스 등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이 가능하다.

소쇄원은 조선시대 원림 건축의 대표작인 정원으로 고즈넉한 자연미를 느낄 수 있으며, 가마골생태공원은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정철원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담양을 찾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며 담양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

## 함평읍 중앙길 확장공사 ‘막바지’…도시재생·농촌중심지 활성화

### 군비 166억 투입…4월말 전면 개통 예정

함평읍 중앙길 확장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협 함평군지부에서 군청을 거쳐 국토정보공사까지 이어지는 읍 중앙길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에 주정차 차량이 집중되면 서 차량 통행과 상가 이용에 불편이 지속돼 왔다.

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66억원의 군비를 투입, 중앙길 총 620m 구간을 기존 폭 7m에서 18m로 확장하는 공사를 읍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존 일방통행 도로 왕복 4차선 확장 △양방향 보

행로 신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3개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보행로에는 여름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쿨링포그(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온도 저감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였다.

군은 읍내 중앙길 인근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와 읍사무소가 조성되고, 경찰서 신축도 예정돼 있어 이 일대를 중심으로 도심 환경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 구간 도로 포장 등 주요 토목공사가 완료됐으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향 통행이 시행 중”

이라며 “도로 공사로 인해 임시 통행 제한됐던 노선버스도 오는 23일부터 중앙길을 통해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말까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차를 모두 철거하고 지중화를 완료해, 나비축제 개막 전인 4월 말 중앙길 전 구간을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회전교차로 3곳(함평군청·세명차·읍교회 앞)에는 함평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도심 경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읍 중앙길은 교통 불편과 주정차 문제로 상권이 위축되고 주요 기관 이전까지 이어졌던 지역”이라며 “이번 도로 확장과 일방통행 해제를 계기로 1970~1980년대처럼 활기찬 중심 상권으로 다시 도약할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 영암, 어르신 생활터 ‘찾아가는 건강교실’

### 읍·면 복지회관에서 영양·관절·금연·구강·걷기 안내

영암군보건소는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 복지관에서 이어지는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어르신의 건강교실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인 11개 읍·면 복지회관으로 찾아가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균형 잡힌 식생활 영양교실, 한의약 관절튼튼 건강교실, 건강 한 생활 습관 형성 어르신 금연 교육, 생활터 구강 건강나이 회복교실, 일상 속 걷

기 실천 영암 배세 팔팔 걷기 등이다.

건강교실에서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함께, 참여 어르신에게 첫 컵을 받고 새 컵을 나눠주는 ‘첫컵술 안녕! 새 컵술 시작!’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가까운 생활터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보건소는 27일까지 각 읍·면 복지관에서 이어지는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 진도, 취약계층 ‘가스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업

진도군은 최근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스 사용의 증가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 관계자와 119생활안전순찰대 대원 등 6명이 참석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65세 이상 어

르신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차단 타

이머 록’ 설치, 취약계층 가구 가스 안전점검, 위험 요인 발견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생활 불편 사항 관련 주택의 소규모 수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가스 누출, 노후 배관,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현장 중심의 복지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조기

에 발견하고,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전문적인 안전 점검과 응급 대응을 담당해 상호 보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력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